

# 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 '디오핀' 누가 웃을까

### 17일 영국 북아일랜드서 개막 '9년만에 메이저 출전' 최경주 임성재·김주형 등 한국 6명 매길로이·세플러 등과 경쟁

남자 골프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제153회 디오피가 17일 막을 올린다. 올해 대회는 영국 북아일랜드 포트러시의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파71·7381야드)에서 개최된다.

1860년에 1회 대회가 열린 디오피는 4대 메이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US오피는 1895년,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챔피언십은 1916년에 시작됐고,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는 1934년 창설됐다.

브리티시오피으로도 불리는 이 대회는 영국 내 9개 골프장 중 한 곳에서 열린다.

디오피 코스는 현재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4곳씩 있고, 북아일랜드에는 올해 대회가 개최되는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이 유일하다.

원래 스코틀랜드에 있는 탄베리에서도 2009년까지 디오피가 열렸으나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에 난입한 사건 발생 이후 디오피를 주최하는 영국 R&A가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인 탄베리에서는 디오피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다시 권좌에 오르면서 R&A 측이 탄베리에서 다시 대회를 열 수 있을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기도 했다.

로열 포트러시에서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디오피가 열린다. 당시에 세인 라우리(아일랜드)가 6타 차로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대회 개막을 앞두고 팬들의 관심이 가장 쏠리는 선수는 역시 북아일랜드 출신인 로리 매길로이다.



최경주

매길로이는 올해 마스터스를 제패하며 숙원이던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마스터스 우승 후 다소 침체한 모습을 보이던 매길로이는 지난주 PGA 투어 스코틀랜드오피 준우승으로 디오피를 앞두고 샷 감각을 끌어올렸다.

매길로이는 15일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해 남은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디오피와 라이더컵"이라며 "마스터스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기분인데, 지난주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제 경기력이 정말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길로이는 불과 16살 때인 2005년에 61타를 쳐 로열 포트러시의 코스 레코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이 장소에서 열린 디오피에서는 컷 탈락했다. 또 지난해 디오피에서도 3라운드 진

출에 실패했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세플러(미국)와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잭슨 쇼플리(미국) 등이 매길로이와 우승 경쟁을 벌인 선수들로 주목된다.

세플러가 정상에 오르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에 US오피만 남게 된다.

또 쇼플리가 우승하면 2008년 파드리고 해링턴(아일랜드) 이후 17년 만에 이 대회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게 된다.

한국 선수로는 최경주, 안병훈, 임성재, 김주형, 김시우, 송영환 6명이 출전한다.

지난해 시니어오피 우승자 자격으로 올해 디오피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PGA 투어 통산 499번째 대회에 나온다.



임성재

1970년생 최경주가 메이저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16년 PGA 챔피언십 이후 9년 만이다. 브리티시오피에는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출전한다.

지난해 디오피 공동 7위에 오른 임성재와 지난주 스코틀랜드오피 17위로 선전한 김주형 등도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서 상위권 진입에 도전한다.

대회가 열리는 로열 포트러시는 바다에 인접한 링크스 코스다.

평지에 가까운 코스로 바다 영향을 받아 바람이 세고, 날씨 변수가 큰 것이 일반적인 링크스 코스의 특징이다. 또 러프가 깊고, 코스 내 벙커도 많은 편이다. 우승자에게 우승 트로피 클라레 저그와 상금 310만달러(약 42억8000만원)를 준다. 총상금 규모는 1700만달러다. /연합뉴스

## 위기의 한국 복싱

### 2개 국제대회 연속 '노메달' 1R 첫판부터 패 '기대 이하'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12년 만에 메달을 획득했던 한국 복싱은 올해 들어 오히려 퇴보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 복싱 국가대표 선수단은 올 시즌 출전한 두 차례 국제 대회에서 전 체급을 통틀어 아무도 메달을 따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 5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태국 국제 복싱 토너먼트에서 쓴 잔을 들이켰고, 지난달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월드 복싱 컵 스테이지 2에서도 빈손으로 귀국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좋지 않았다. 많은 선수가 1라운드 첫판부터 패했고 경기력도 기대 이하였다.

한 원로 복싱인은 "아무리 한국 복싱이 부진했다고 해도, 국제 대회에서 두 번이나 연달아 메달을 따지 못한 건 조유의 사태"라며 "이대로 간다면, 내년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과거 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서 '효자 종목'이었던 복싱은 꾸준히 내리막을 걸었다.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복싱 은메달 한순철 이후 줄곧 올림픽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던 한국 복싱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임예지(화순군청)가 여자 54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복싱 12년 만의 메달이자, 여자 복싱 최초의 메달을 목에 건 것이다.

한국 복싱은 여자 복싱에서 희망을 발견했다며 기대에 부풀었으나 올해 국제대회에서 돌아온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이에 따라 대한복싱협회는 조만간 경기력 향상 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국제 대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시체육회 봉사린, 봉황기 전국사격 '금빛 총성'

### 여자 일반부 25m 권총 대회신 단체전 은메달...남부대 은3 동1

광주시체육회 봉사린이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봉사린은 나주국제사격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5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여자 일반부 25m 권총 경기에서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수확했다.

봉사린은 개인전에서 총점 583점(완사 288.0·급사 295.0)을 기록하며 3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완사는 5분 이내 5발, 급사는 3초간 1발 격발 뒤 7초 대기 방식이며 각각 5발씩 6시리즈가 진행된다.

봉사린은 지난해 파리올림픽 여자 공기권총 10m '금메달리스트' 오예진(IBK기업은행)과의 경쟁 끝에 41점을 쏘며 기존 대회 기록(37점)을 갈아치우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다.

8명이 급사로 경쟁을 펼친 결선은 20발을 쏜 뒤 5발을 쏠 때마다 최하위 선수가 한 명씩 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0.2점 이상 명중 시 1점, 10.2점 미만 시 0점으로 처리된다.

봉사린은 단체전에서는 손예진·심예림·이현민과 1735점을 합작하면서 오예진·곽정혜·오민경·문규빈으로 구성된 IBK기업은행(1750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장대규 광주시체육회 감독은 "팀워크와 끈기를 바탕으로 값진 준우승을 이뤘다. 특히 개인전에서



제55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여자 일반부 25m 권총 경기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한 광주시체육회 심예림(왼쪽부터), 봉사린, 이현민, 손예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봉사린은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개인전 금메달도 차지했다. <장대규 감독 제공>

는 봉사린 선수가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오예진 선수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폭염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평소 훈련하던 장소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선수들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광주대표인 오준영(상무)은 남자 일반부 50m 3자세에서 440.3점을 쏘면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한 김중현(452.7·KT), 박성현(450.7·서산시청)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남부대는 여대부 경기에서 3개의 은메달과 1개

의 동메달을 획득했다.

원채은이 25m 권총 개인전에서 35점을 기록, 파리올림픽 이종목 금메달리스트인 한국체대 양지인(36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원채은은 두 명의 김예진과 박수민과 출전한 공기권총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했다.

공기소총에서는 김효빈·박경은·손진주·이재원이 한국체대에 이어 단체전 은메달을 합작했다. 김효빈은 공기소총 개인전 동메달도 수확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제67회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단체전 우승과 3위를 이룬 서석고와 서석중 선수들이 모교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광주서석고, 춘계 전국 중·고 검도 정상 탈환

광주서석고와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서석고는 지난 13일 전남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끝난 제67회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2023년 제65회 대회에서 34년 만에 단체전 우승을 이뤘던 서석고는 2년 만에 다시 우승기를 가져왔다.

서석고는 올 시즌 2번째 단체전 우승이기도 하다. 서석고는 지난 5월 열린 제8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서석중과 동반 우승을 기록했다.

원주 치악고와의 예선 1회전을 시작으로 인제원통고, 진주 명신고를 꺾고 준결승에 오른 서석고는 인천고를 6-4로 누르고 결승 티켓을 차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온양용화고와 대회 정상을 다툰 서석고는 선봉 서규원이 0-0으로 비긴 뒤, 2위 안일웅이 노형남을 2-0으로 누르면서 초반 분위기를 가져왔다. 3위 오승준과 중견 채희준이 연달아 0-1패를 기록했지만 5위 강현우가 강우석을 1-0으로 꺾었고, 이어 부장 정우민이 엄정민을 상대로 2-0 승리를 가져오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침착함과 빠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단체전 우승을 이끈 주장 이정환은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서석중도 이번 대회에서 단체전 3위에 올랐다.

개인전에서는 옥하준이 배용한(익산중)과의 결승에서 0-1로 지면서 준우승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2025-07-12(토) 11:00, 13:00 / 북구 문화근린공원 2025-08-02(토) 13:00, 15:00 / 첨단 국립광주과학관 2025-08-03(일) 13:00, 15:00 / 첨단 국립광주과학관  
문의 : 062-526-0363  
\*우천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조선아 개인전 : 시간을 담다**

일시 : 2025-07-11(금)-2025-08-10(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